



출발 전 건강정보 확인은 여행의 시작!

‘살모넬라균 감염증’

미리 알고, 더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 동남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오염된 식품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증이 꾸준히 발생



살모넬라균 감염증이란?

- ▶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해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병**



오늘의 주제!

1.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 감염증

: 급성 위장관염(배탈 등)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형태

2. 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 감염증(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환자나 보균자의 대변·소변에 오염된 음식과 물을 통해 전파되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 중증 형태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어떤 상황에서 감염될 수 있나요?



오염된 음식



- ▶ 덜 익힌 육류, 가금류, 달걀 섭취
- ▶ 살균되지 않은 우유, 주스 섭취
- ▶ 씻지 않은 채소, 과일 섭취
- ▶ 길거리 음식

오염된 물

- ▶ 오염된 물 또는 얼음 섭취



위생 부족

- ▶ 파충류, 가금류 등 동물 접촉 후 손을 씻지 않은 경우





안전한 여행을 위한 예방법

✈ 여행 전

정보와 준비

- ▶ 방문국 감염병 발생 현황 확인
: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 NOW
여행건강알림e (26년 10월~)



🧳 여행 중

예방 수칙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뜨거울 때 섭취



물은 끓이거나 밀봉된 생수만 섭취,
얼음 주의



껍질째 먹는 과일, 채소는 피하기



화장실 이용 후,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동물(특히 파충류, 가금류, 설치류 등)
접촉 후 반드시 손 씻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봐야 해요



발열, 두통



복통, 경련

노출 후
약 6시간~10일(대개 6~48시간) 이내 증상 발생,
수일에서 일주일까지 지속



설사



메스꺼움, 구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세요





건강하게 준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다양한 질병 관련 정보 알아보기

질병관리청 아프지맵로그



여행과 관련된 건강 상담

여행의학 클리닉의 모든 것

